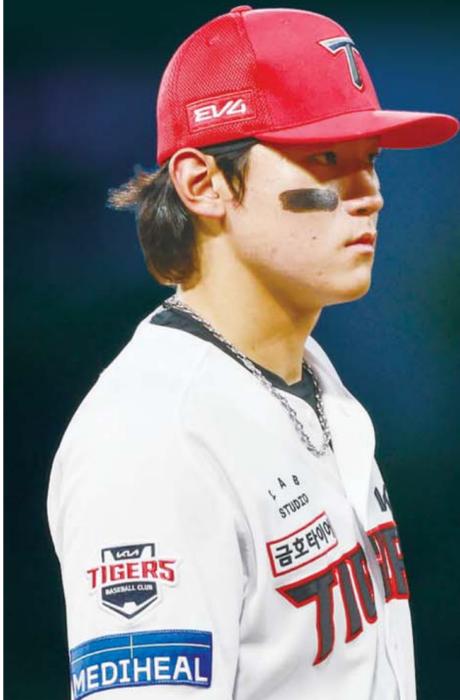


올 시즌 '세 번째 부상'...또 멈춰선 김도영



7일 롯데전 수비 도중 '삐끗'...사실상 시즌 아웃

3·5·8월 잇단 햄스트링 부상...복귀 후 3경기 만에 또 이탈 비상등 켜진 KIA, 대체 자원 활용 등 팀 전략 재수정 불가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간판 타자' 김도영이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시즌 세 번째 부상으로, 사실상 남은 정규시즌 출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KIA 구단은 지난 8일 "김도영이 이날 오전 창원 청아 병원에서 MRI 검진을 받았으며, 선한병원 등에서 크로스 체크한 결과 좌측 햄스트링 근육 손상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종이 있어 2-3주 후 재검진을 통해 정확한 부상 정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도영은 전날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전 5회말 수비 도중, 상대윤동희의 땅볼을 처리하다 왼쪽 햄스트링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다.

당시 구단은 '근육 뭉침'이라고 발표했으나, 정밀 검

사 결과 손상이 확인됐다.

올 시즌 김도영의 햄스트링 부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3월22일 NC와의 홈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 한 달간 재활 후 4월25일 LG전에서 복귀했다.

5월27일 키움전에서는 2루 도루를 시도하던 중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과정에서 오른쪽 햄스트링 손상(2단계)으로 두 달 이상 이탈했다.

지난 2일 1군에 복귀했지만, 단 3경기 만에 다시 왼쪽 햄스트링 손상으로 쓰러졌다.

포스트시즌 진출 시점까지 회복 여부에 따라 출전이 검토될 수 있으나, 정규시즌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정규시즌 MVP에 오른 김도영은 KIA의 통산 12번째 우승을 이끈 대타 불가판 타자다.

올 시즌엔 30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타율 0.309, 출런

7개, 27타점, OPS 0.943을 기록하며 강한 임팩트를 남겼다.

특히 조정 가중 득점 생산력(wRC+) 154.0으로 팀 내 2위(1위 최형우 161.2)를 기록, 리그 평균 대비 50% 이상 뛰어난 공격력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공백 속에 KIA는 전반기 한때 최하위까지 밀려났고, 현재도 치열한 순위 싸움 한복판에 있다.

리그 5위(50승 49패 4무)에 자리한 KIA는 4위 SSG와 불과 1경기 차, 7위 NC와는 1.5경기 차다. 잔여 41경기에서 한 시리즈만 빼끗해도 순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구도다.

무엇보다 공격과 주루를 겸한 김도영의 부재는 전술 운용 폭을 좁힌다. 그의 장타력과 클러치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득점권 타율도 리그 8위(0.251)에 머무는 KIA로서는 찬스 생산과 해결력 모두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남은 시즌 KIA의 목표는 상위권 도약이지만, 김도영의 장기이탈 시 5위 수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상위권과의 맞대결에서 버티지 못하면 6-7위까지 순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KIA의 성패는 주축 이탈의 공백을 대체 자원의 생산력으로 얼마나 메우느냐에 달려 있다. /주홍철 기자

강렬한 MLS 데뷔전... '손흥민 시대' 열렸다

LAFC 이적사흘 만에 데뷔전 '폭풍 질주' 동점 페널티킥 유도 "다음 경기엔 더 큰 임팩트 기대"

로스앤젤레스(LA) FC 입단 사흘 만에 치른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전에서 변함없는 존재감을 보여준 손흥민이 곧 골 소식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랐다.

손흥민은 10일 오전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저뷰의 시트릭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와 2025 MLS 2라운드 원정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승점 3을 얻지 못해 조금 실망스럽지만, 모두가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데뷔전을 치러서 기쁘고, 곧 골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이날 LAFC의 교체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1-1로 맞서 있던 후반 16분 투입됐다. 그리고 나서 1-2로 끌려가던 후반 36분 2분차 부앙가가 동점 골로 마무리한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팀의 2-2 무승부에 힘을 보탰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 지난 10년 동안 활약했던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떠나 지난 7일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최대 2천600만달러(약 309억원)에 LAFC에 입단한 뒤 사흘 만에 치른 MLS 데뷔전이었다.

원정 경기임에도 이날 관중석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아시아 최고 축구스타 손흥민에게 향하는 환호는 컸다.

손흥민은 "정말 즐거웠다"면서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적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구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기뻐다. 이곳에 있는 게 정말 좋다"고 MLS



10일 열린 MLS 시카고 파이어와의 원정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 LAFC 손흥민이 경기 후 팬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S그라운드에 첫발을 내디딘 소감을 밝혔다. 페널티킥을 얻는 과정에서는 손흥민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 능력이 그대로 드러났다.

LAFC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공을 이어받아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으로 몰다가 상대 수비수 카를로스 테란에게 밀려 넘어졌다.

이후 주심은 비디오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이 상황에 대해 손흥민은 "훌륭한 패스였고, 확실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서 "확실한 페널티킥이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했다. 비록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친 손흥민에게 동료들도 엄지를 내세웠다.

LAFC는 17일 오전 8시30분 매사추세츠주 포क्स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오늘 30분 정도 뛰었고, 다음 주 경기도 준비하고 있다. 동료들과 훈련을 통해 어떻게 나아질지 보겠다"면서 "다음 주에는 선발로 나서서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5 하계 전국실업검도대회 7인조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무안군청 검도팀이 시상식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무안군청, 실업검도 7인조 단체전 우승

김한범, 5단부 개인전 은메달

무안군청 검도팀이 2025 하계 전국실업검도대회 7인조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유하늘, 정경인, 김병훈, 박시원, 이후성, 송인준, 김한범이 팀을 이룬 무안군청은 지난 8일 경남 창녕에서 열린 대회 7인조 단체전 결승전에서 수원특례시청을 4대3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주장 유하늘의 맹활약을 앞세운 무안군청은 앞서 창원시청, 광명시청, 달서구청을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개인전에서는 5단부에 출전한 김한범이 은메달을 수확했다.

무안군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단체전 3회, 개인전 1회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무대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해송 전남검도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눈부신 투혼과 열정은 전남 검도의 밝은 미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조건부 출전' 고지원, KLPGA 생애 첫 우승

고향 제주서 삼다수 마스터스 패권 단일시즌 '자매 우승' 진기록도 수립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전 경기 출전권이 없어 빈자리가 생기는 대회에 만 출전할 수 있었던 '비정규직' 고지원이 생애 첫 우승을 따내 인생 역전을 이뤘다.

고지원은 10일 제주 서귀포시 사이프러스골프&리조트 북·서 코스에서 열린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3연타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21연타파 207타로 정상에 올랐다.

노승희를 3타 차로 따돌린 고지원은 데뷔 3년 만에 61번째 출전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다.

작년에 치른 세 번째 시드전에서 42위에 그친 고지원은 올해는 주로 2부인 드림투어에서 뛰면서 KLPGA 투어는 빈자리가 나올 때 겨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한 고지원 <KLPGA 제공>

우승할 수 있는 '조건부 출전권자'였다. 고지원은 이번 우승으로 2027년까지 시드를 확보했다. 이미 3차례 우승한 언니 고지원에 이어 고지원도 챔피언에 오르면서 박희영과 박주영에 이어 KLPGA 투어에서 두 번째 자매 우승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지난 6월 고지우가 맥콜-모나 용평 오픈에서 우승했기에 자매가 같은 시즌에 우승한 건 처음이다. 또 고지원은 태어나서 자란 고향 제주에서 첫 우승을 거둬 기쁨이 더했다. /연합뉴스

MLB 150년 만에 최초 여성 심판 파월, 역사적 데뷔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출범한 지 150년 만에 첫 여성 심판이 탄생했다.

소프트볼 선수 출신으로 오랜 기간 마이너리그에서 심판으로 뛰었던 여성 심판 켄 파월(48)은 10일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더블헤더 1차전에 1루심으로 나섰다.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경기에서 여성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1876년 내셔널리그(NL) 창설 이후 150년 만에 처음이다.

양측 벤치로부터 별다른 항의 없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친 파월은 "오랫동안 기대했던 꿈을 이뤘지만,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소

감을 전했다. 뉴저지주 출신으로 확장 시절 소프트볼과 축구 선수로 활동한 파월은 2010년부터 미국대학 스포츠협회(NCAA) 소프트볼 심판으로 뛰었다.

2015년에는 메이저리그 심판 트리아아웃 캠프를 수료한 뒤 2016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1천200경기 이상 심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도 참가했다.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여성 심판이 나선 것은 파월이 세 번째다.

시범경기를 거쳐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경기



메이저리그 최초 여성 심판 켄 파월의 역동적인 아웃 선언 <UPI-연합뉴스>

에서 최초의 여성 심판이 된 파월은 경기 뒤 자신이 쓴 모자를 명예의 전당에 전달했다. 11일 열리는 애틀랜타와 마이애미의 시리즈 최종전에서는 주심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